

2017년 2월

북극물류동향



북극물류연구소
Institute of Arctic Logistics

| 특집 | 북극해항로운항 | 자원개발 | 러시아 북극 동향 | 국제협력 | 기후변화 |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2017. 3. 6.

2월호의 특집기사는 3월호 특집에 합하여 실릴 예정입니다.

<북극해항로 운항>

○ 원자력쇄빙선 '승전 50주년'호, 6개월간 총 99척 도선

▶ 원자력쇄빙선 '승전 50주년'호가 2016년 8월부터 6개월 간 총 99척의 선박을 도선하고 2017년 2월5일에 선적항인 무르만스크항으로 귀항했다고 러시아 '아톰플로트'사 공보실이 전함.

가장 독특한 작업은 2척의 쇄빙선과 함께 최고로 늦은 항해시기인 2016년 12월 21일에 베링해협 축치해에서 출발하여 북극해항로 전체를 2주일 만에 성공적으로 통항한 것이었음. 모듈운반선 'AUDAX'호를 포함한 총 3척으로 구성된 선단을 도선했는데, 나머지 2척의 쇄빙선은 전 노선을 통항하지 못하고 페백항에서 월동해야 했었다고 드미트리 로부소프 동 쇄빙선 선장이 말함.

출처:<http://www.tv21.ru/> 2017.02.06.

○ 러시아선급협회(RS), LNG 해상운송 관련 권한 확대

▶ 러시아선급협회(RS)가 지난 10년 동안 LNG가스 해상운송분야에 관련된 권한을 확대하여 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현격한 성과를 달성함. RS class에는 다양한 유형의 가스운반선이 있으며, LNG 가스수송선의 발주 포트폴리오는 2019년까지 작성되어 있고, 60명의 RS 전문가들은 가스 해상운송분야의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과했음.

가스운반선의 등급분류 및 건조 규정은 1985년부터 RS가 발행했음. 2000년 초반의 가스프로젝트들의 활발한 개발은 이 분야의 체계적 개발에 관한 종합프로그램을 내놓는 촉진제가 되었음.

2009년 RS는 그 당시 계획된 Shtokmanovskoe 매장지 개발 구상 작업에 'Gazprom Global LNG'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됨. 2010년에 RS가 첫 번째 LNG 가스운반선 'Grand Aniva'에

class를 부여함.

러시아 'Sovkomflot'사가 발주하여 한국 'STX Offshore & Shipbuilding'사가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Velikiy Novogorod'호 타입 가스운반선의 RS class 건조 중에 RS의 전략적 계획이 세워짐.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RS는 2012년에 선박의 디자인·신조 기술지원센터를 한국 부산에 개소함.

현재의 추세와 누적된 노하우에 의해 가스운반선의 규정이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프로그램 개발은 LNG선의 복잡한 특수 장비들의 기술 감독 분야도 아우르게 됨. 그래서 RS는 그 당시 최신이었던 'MAN Diesel & Turbo'사의 이중연료, 낮은 rpm의 디젤엔진의 제어시스템의 유형별 테스트에 참여했었음.

RS가 제휴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가스의 보관·운송 시스템 면에서 유명한 'Gaztransport & Technigaz (GTT)'사가 있으며, 2012년에 동 회사와 협정을 체결함. 동 회사와 RS의 지식과 기술을 합침으로써 고위도 해역 운영용 LNG 가스운반선의 설계디자인과 건조에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었음.

현재 RS의 기술 감독 하에 Arc7급 신형 LNG 북극가스운반선 시리즈가 건조되고 있으며, FSRU 타입의 첫 번째 선박(Arc4)이 건조되고 있다고 RS 공보실이 전함.

출처:<http://rus-shipping.ru/ru/> 2017.02.09.

○ 국제해사기구(IMO), 극지운항선박의 신규 규칙 소개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금년 1월 23일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북극 프론티어 (Arctic Frontiers)'에서 극지운항선박들의 신규 규칙을 참석한 대표단들에게 소개했다고 IMO 공보실이 전함.

극지운항의 증가와 국제환경보호단체의 우려, 선원과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IMO는 선박의 설계, 건조, 장비 및 선원 양성과 환경보호 문제 모두를 아우르는 신규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을 채택했고, 금년 1월 1일에 발효된 동 규칙의 수립에 러시아선급협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였음.

동 기준은 극지운항의 안전보장과 환경규제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 중 하나라고 임기택 사무총장이 발언함.

출처:<http://rus-shipping.ru/ru/> 2017.01.25.

○ 러시아선급(RS), 47개국 해양부서로부터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검사 위임 받음

▶ 3개의 국제기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 4월에 채택된 2006년 해사노동협약(MLC)의 개정안이 2017년 1월에 발효되었다고 RS(러시아선급협회) 공보실이 전함.

동 협약과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인정받은 기관은 러시아선급협회 뿐임. 동 개정안이 발효된 순간 RS는 국제노동기구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 특히, 자기 소유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에 대한 선주의 재정보증 증빙 서류를 선박이 구비하고 있는 지를 검사할 권한을 47개국 해양부서로부터

위임 받았음.

동 개정된 요건은 예를 들어, 선원이 도움 없이 방치될 경우 단기간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선원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청구를 용인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선주를 위한 것임.

출처:<http://portnews.ru/> 2017.01.30.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북극 운항 선박들 중유사용 금지 주장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중유사용 선박들의 북극수역 운항 시 중유사용을 금지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으며, 111명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했다고 동 의회 공식사이트에서 전함.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후변화의 2번째 주요 요인인 중유를 선박연료로 사용을 금하는 것은 남극에서는 이미 발효되었지만, IMO는 북극지역까지 아직은 확대하지는 못 했음. 교통환경 그룹의 성명서에서 사고로 인한 석유 유출 시 중질유는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고, 이것은 극히 연약한 북극 생물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음.

우리는 북극에서 가장 더러운 연료를 금지하자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유럽의회 위원들의 결심을 환영함. 이 안건이 IMO의 의제에 아직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 EU 회원국들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 세계 최고로 연약한 생태계 중 하나를 보호하자는 이니셔티브를 IMO 회의에서 제안해야 한다고 Faig Abbasov 교통·환경정책 그룹 대표가 말함.

북극 수역을 항해하는 전체 선박의 75%가 벙커유로 중질유를 사용하고 있음.

출처:<http://rus-shipping.ru/ru/> 2017.02.02.

○ 푸틴 대통령, 북극해항로 선박도선서비스 연방법에 서명

▶푸틴 대통령이 북극해항로 해역 선박의 쇄빙선 도선 및 빙해역 도선사 도선 서비스요금 절차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으며, 동 서류는 법률정보 공식 포털에서 공표됨.

해상법전 제 51조 5항이 군선들에는 적용되지 않음에도, 현재 군선들은 NSR 해역에서의 쇄빙선 및 빙해역 도선사의 서비스 이용 시 동 조항이 정한 요율을 사실상 이미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기존의 법령의 결함을 없애서, NSR 해역에서의 쇄빙선 도선서비스 및 빙해역 도선사 도선서비스의 요율 범위를 정하는 해당 법령을 군함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임.

출처: <http://arctic.gov.ru/> 2017.02.07.

<자원개발>

○ 프랑스 'Total'사의 북극프로젝트, 대러 제재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

▶프랑스기업 'Total'사는 크림 합병에 대한 서양의 제재 이후에도 러시아, 특히, 가스분야에 대단한 관심을 가져왔음. 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된 'Sovkomflot'사의 탱커-가스운반선 '크리스토프 데 마제리'(Christophe de Margerie)호가 1월 20일에 유럽에 입항한 것은, 작고한 전 'Total'사 회장 Christophe de Margerie가 시작한 자사의 가스의 채굴 및 액화프로젝트(연 16.5백만톤) <야말 LNG>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임.

낮은 채굴원가 덕분에 프로젝트<야말 LNG>는 경쟁력이 있으며, 가격변동에도 맞설 수 있다고 빠드릭 뿌요네(Patrick Pouyanné) 동 회사 사장이 지난 여름에 말한 바 있음.

동 회사는 Shtokmanovckoe 가스 콘덴세이트전 개발에도 '가스프롬'사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동 프로젝트는 2012년 미국의 셰일가스의 활발한 채굴로 인해 개발이 연기되었음.

푸틴 대통령은 이 2개의 프로젝트가 무역 균형을 아시아 방향 특히, 중국으로 옮겨 줄 것이라 확신하며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 두 프로젝트를 新실크로드의 일부로 보고 있음.

출처: <http://inosmi.ru/> 2017.01.25.

○ '가스프롬'사, 카라해 탐사시추 금년에 재개할 계획

▶'가스프롬'사가 카라해 레닌그라드스코예 가스콘덴세이트전의 탐사정 시추를 금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리아 노보스찌가 전함. 동 회사는 2013년에 동 자원매장지 개발 라이선서를 받았으며, 작년 7월에 라이선스 기한을 2043년까지 연장했었음. 보존량은 C1+C2 카테고리별 가스 1.05조 CBM, 가스콘덴세이트 3백만 톤임.

출처:<http://neftegaz.ru/> 2017.02.02.

<러시아 북극 동향>

○ 야쿠치야 상원의원, 해외투자자 없이 북극문제 해결 주장

▶해외자본은 그것이 현저한 이득을 가져올 때 북극에 필요하다고 바체슬라브 쉬띠로프 연방회의 산하 남·북극 위원회 의장이 말함.

러시아 북극개발에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새로운 지적 생산물과 기술, 장비를 얻기 위해, 그리고 기술과 장비를 연구하고 사용하면서 현저한 이득이 있을 경우에만 타당함. 나머지 모든 북극문제들은 우리 자본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연방회의 공보실이 바체슬라브 쉬띠로프의 말을

인용해서 전함.

실례로, 북극해항로 개발은 외자유치가 타당하지 못할 수 있음. 국가의 북극 간선인 북극해항로와 특히, 항행 에스코트, 러시아 내해의 해저상태 모니터링, 고가의 특수 희귀 광물의 채굴 분야들을 외국인들의 손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쉬띠로프 씨가 덧붙임.

출처: <http://arctic.gov.ru/> 2017.02.09.

○ 푸틴 대통령: 2개의 신규 파이프라인 간선, 국가 경제에 현저한 이익 가져올 것

▶야말의 중요한 가스파이프라인 간선 "보바넨코보(야말네네츠키 자치구)-우흐타(코미공화국) 2" ('가스프롬'사, 1200km 이상, 야말반도에서 단일가스공급시스템으로의 수송용)과 송유관 "자뽀라리에 뿌르빠"('트란스네프티'사, 간선 "자뽀라리에 뿌르빠 - 사모틀로르"의 일부. 약 1000km)가 오늘 가동되었으며, 동 가동식에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크레믈린에서 화상으로 참여하여 시동 명령을 내림.

험난한 자연기후조건에서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중요하고 거대한 국가프로젝트를 완수한 'TEK'사 임직원들 및 참여자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며, 동 파이프라인들의 가동은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의 가능성을 능력을 본질적으로 확대시키고, 국가 경제 전체에 현저한 이익을 가져올 것임. 지역들을 앞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말함.

북부 가스수송회랑 "보바넨코보-우흐타 2"은 러시아 유럽지역의 주요 가스공급 라인이 되고, 러시아 가스의 유럽 공급을 위한 새로운 수출 노선이 될 것이라고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사 사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함.

출처:<http://www.vesti.ru/> 2017.01.18.

○ 러시아국방부, 북극 군사시설 100여 개 연내 가동 예정

▶제물라 프란차이오시파 제도(제물라 알렉산드리 섬 나구르스코예 공항과 시설물 60여 개 이상), 노바야 제물라 섬(로가체보 마을 정비기지, 사회 기반시설, 공항), 축치 자치구(슈미트 곶 군사·사회 인프라 시설 30개 이상), 스레드니 섬, 브란겔라 섬, 코텔리 섬 등 러시아국방부 북극 군사기지 지역에 총 100 여개 이상의 군사 기본시설물을 금년 말까지 완공, 가동시킬 계획이라고 국방부 공보실이 전함.

출처:<http://tass.ru/> 2017.01.25.

○ 러시아 북위도 회랑 재무모델, 정부에 제출

▶북위도회랑 프로젝트의 재무모델이 수립되어 정부에 제출했다고 막심 소콜로프 러시아교통부장관이 리아 노보스찌에 전함.

북극존 전체의 개발에 있어 중요하고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동 프로젝트의 경제모델은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으며, 모델이 준비되고 채택되었을 때는 연방예산이 심각하게 축소되었음. 그래서 연방자금 대신 예산외 자금 즉, 투자자를 모색하는 극단적인 다른 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교통부장관의 말을 전함.

가까운 시일에 동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램. 동 프로젝트는 국가 전체의 수송시스템에 있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소콜로프가 말함.

출처: <http://ru.arctic.ru/> 2017.01.17.

○ 러시아 과학자들의 북극개발관련 입법활동 참여 제안

▶ 북극개발에 관한 입법 활동에 과학자들을 포함시켜서, 북극 소재 연구기관을 위한 우대 같은 부극 과학연구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결정해야 함. 과학은 북극에서 사용할 친환경소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체슬라브 슈티로프 연방회의 산하 남·북극위원회 의장이 TAS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함.

북극의 채굴광산업, 석유가스산업, 북극해항로, 북위도회랑, 교통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문제도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함. 소재개발 연구자들은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8곳의 거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수송·항만인프라 개발, 석유가스복합단지개발, 희토류 광물 개발 등)이 초래하게 될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동 활동들에 대한 올바른 기획 및 예상 시스템이 이미 준비되었다면, 응용과학과 기초과학 분야의 업무를 수립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부는 앞으로의 프로그램 모두를 연방과학청에 이미 전달했어야 함.

또한, 국가북극개발위원회 업무에 북극에서 개발할 주요 과학 분야를 정하는 업무를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함.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설계 디자이너와 다른 문서작성자들 같이 후방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조건들을 법안에 넣어야 함.

출처: <http://tass.ru/> 2017.01.24.

< 국제협력 >

○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 러시아와의 북극협력은 성공적

▶ 러시아 정보기관의 활동, 러시아 군사력 강화, 러시아 해커들의 노르웨이 공무원들의 이메일 접속 시도 등에도 불구하고, 고위도지역에서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다수의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보르게 브렌데(Borge Brende)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이 노르웨이 전신사무국(NTB)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힘.

북부지역에서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성공적인 협력은 상당히 유지되고 있음. 겨우 몇 개월 전에 양국은 바렌츠해와 북빙양의 대륙붕 경계선과 그 인근 지역의 지진 데이터 수집 절차에 관한 협정의 준비작업을 마쳤고, 봄에 조인할 예정임. 또한, 국경부근 무비자 구역 확대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3월 4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장관이 말함.

출처: <http://arctic.gov.ru/> 2017.02.08.

○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 러시아는 북극 이웃들과의 호혜협력 희망

▶러시아는 러시아 북극존 프로젝트들의 공동 시행을 목적으로 교통·에너지산업에서 관광과 환경까지 가장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과 북극의 이웃들과의 북극에서의 광범위한 호혜적인 협력에 변함없이 열려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2월 8일 최초로 러시아에서 개최된 북극경제이사회위원회 회의의 개회사 내용을 외무부 공식사이트에서 전함. 이런 프로젝트들을 위한 협력은 향후 평화를 구축하고 지역을 안정시킬 것임. 모스크바 역시 북극지역 경제계 사이의 관계 확대에 관심이 있다고 라브로프가 확신함.

출처: <https://regnum.ru/> 2017.02.08.

○ 바렌츠 사무국장, 러·노르웨이 국경 공개 지지

▶우리는 무르만스크와 아르한겔스크의 해상 국경뿐 아니라, 그 지역의 자동차도로로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5년 안에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Lars Georg Fordal 노르웨이 바렌츠 사무국 국장이 목요일 제 10차 키르케네스 회의 폐막식에서 말함.

현재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에 사증면제 구역 협정이 작용하고 있으며, 쇠르 바랑에르 자치주와 국경에서 30km에 위치한 무르만스크주 페첵스키 지역이 동 협정에 포함됨.

노르웨이 바렌츠 사무국은 1993년 10월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1월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러시아가 키르케네스 선언에 조인한 후에 바렌츠유로북극지역이 조성됨.

현재 동 사무국은 바렌츠해 다자협력에 노르웨이의 참여를 지지하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3200여 개 이상의 노르웨이-러시아 협력에 재정적으로 지원했음.

출처: <http://www.interfax-russia.ru/> 2017.02.09.

○ 북극경제이사회 참석자들, 북극 투자 검토

▶러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북극경제이사회에서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미국의 세계 대표들이 수요일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북극 개발에 관해 토의할 것임.

회의 중 이사회의 조직관리문제와 해상운송, 통신 분야의 북극 인프라 개발과 북극투자유치를 위한 메커니즘 조성 등의 현안들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포럼 공보실이 전함.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연구소, 대학, 조선소들은 러시아 북극지역과 북극해항로의 개발을 많은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전문대학교에서는 북극개발의 잠재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게오르기 폴타첸콘 주지사가 동 이사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있는 화요일 간담회에서 말함.

출처: <http://arctic.gov.ru/> 2017.02.07.

○ 블라디미르 티토프: 동반자관계 정책이 북극의 미래 결정

▶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교부 제1 차관이 러시아의 바렌츠/유럽북극위원회(BEAC) 의장국 활동결과에 관해 TASS와의 인터뷰 중에 말함.

바렌츠/유럽북극위원회(BEAC)에서 러시아의 의장국 활동이 이미 중반에 다다랐음. 러시아 의장국의 프로그램은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문화·관광 교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분야는 장관급회의와 실무그룹 형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교통장관회의에서는 철도, 자동차도로, 해로를 이용하는 16개의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초국경적인 교통회랑 개발 분야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 이 회랑 중 7 노선이 러시아영토를 지나감. 또한, 북유럽에 동-서 노선의 항공망을 개발하는 안건도 검토되었음.

바렌츠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함. 동 지역들의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고위급대표들의 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2018년 동 위원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며, 정치인부터 세계, 메스미디어 대표까지 참여하는 정규 장관급포럼으로 일종의 '바렌츠 다보스' 설립을 회원국들에게 제안할 계획임.

러시아는 북극을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으로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음. 북유럽에는 동 위원회 외에도 북극이사회, 발트해 연안국협의회, 북유럽각료회의 등 많은 형태의 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북극국가들 공통의 도전들이 목전에 있음. 북극에서의 러시아 대외정치활동은 북극 발전 및 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확대를 위한 공동의 해답을 찾기 위해 북극국가들과 협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동반자관계 정책이 북극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 이를 위해, 향후 북극에서의 러시아의 경쟁우위를 제한하려 하고, 러시아 국경근처의 NATO의 군사 활동 확대를 비롯한 북극의 정상적인 구조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확고하게 대항할 계획이라고 제1차관이 말함.

출처: <http://tass.ru/> 2017.02.06.

○ EU, 2020년까지 북극에 15억 유로 투자

▶ 유럽연합은 북극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이 있으며, 유망 프로젝트들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유럽지역발전기금은 2014-2020년까지 북극프로젝트들에 총 1.5십억 유로를 할당할 것이라고 Karmenu Vella 유럽연합 환경해사어업집행위원회 위원이 국제회의

<북극프론티어>에서 발언했다고 유럽위원회 공보실에서 REGNUM 기자에게 전함.

<Visit Arctic Europe>, <Circular Ocean> 등 여러 프로젝트에 기금의 자금이 투입될 것임. 프로젝트 <Visit Arctic Europe>는 핀란드, 스웨덴령 라플란드, 북노르웨이, 사미족(Saami) 전통거주지역 소재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 발전의 무대가 될 것이며, 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럽북극지역의 관광발전을 계획하고 있음. <Circular Ocean>는 해양플라스틱폐기물과 관련되어있으며, 이 외에도 북부인들의 교육 및 보건관련 프로젝트도 있음. 투자한 프로젝트들은 시너지 효과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Karmenu Vella 위원이 말함.

출처: <https://regnum.ru/> 2017.01.24.

○ Arctic Frontiers 2017,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

▶ 고위도지역에서의 협력 현안들과 지역천연자원개발 및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연례국제회의인 «Arctic Frontiers - 2017»가 금년에 11회를 맞아 트롬쇠 북극대학교에서 개최되고, 개회식은 Fram 극북 환경기후연구소에서 어제 있었음.

금년 회의에서는 1400명 이상의 정치인, 사회활동가, 사업가, 기자, 학자들이 북극에서의 인간의 생활과 활동에 관한 중요 현안들을 토론할 것임. 행사에는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핀란드, 일본 및 북극지역 개발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 총 30여 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함.

주제 <white spaces - blue future> 하에 발표되는 내용들은 세계 해양자원개발, 얼음층(ice cover) 상태, 고위도지역 비즈니스의 애로점, 조업의 미래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것임.

출처: <http://www.arctic-info.ru/> 2017.01.23.

<기후변화>

○ 러시아, 기후변화에 맞춘 '2020 기후정책' 수립 착수

▶ 러시아정부가 '2020 러시아기후정책 시행의 개정안을 승인함.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건설부, 경제부, 에너지부,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과 손실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수립하고, 교통 및 기반시설의 건물과 시스템을 위한 대책과 적응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국가전략을 공동으로 검토하기 시작함.

매년 러시아는 위험한 기후현상으로 인해 30-60십억 루블을 지출하고 있으며, 북극지역들은 지역총생산의 최대 5%까지 자연재앙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투입하고 있음.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직간접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2030년까지는 연평균 GDP의 최대 1-2%의 손실을 국가경제에 끼치게 되고, 특히, 극동, 시베리아, 북극 지역은 기후격변과 영구동토층,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GDP의 최대 5%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Kommersant 지가 전함.

러시아 연방주체 정부들이 이 문제를 담당하고, 관련 법령을 채택해야 함. 위험한 현상에 대한 적응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연방예산자금을 지역들에게 배분해야 함.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비준 준비계획에 따라 2018년 7월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세르게이 돈스코이 천연자원부 장관이 말함.

출처: <http://www.arctic-info.ru/> 2017.02.07.

-끝-